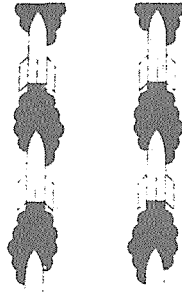


電子工業日誌



〈93. 9. 1~9. 22〉

9. 1: ETRI, 국내 처음으로 3"기판에 양산가능한 갈륨비소(GaAs)초고주파 집적회로(MMIC)제작기술의 개발에 성공했다고. 동기술은 휴대전화기, 무선LAN, PCN, 위성통신, 위성방송수신기 등에 사용되는 부품을 제작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다.
9. 1: 상공자원부,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통에로기술 및 핵심요소기술 286개를 선정 오는 12월중 43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.
9. 2: ETRI, 음성기능이 강화된 국내 국내 무선호출기용 주문형 반도체와 다목적 중량 인디케이터용 주문형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고.
9. 2: KAIST, 실리콘웨이퍼 자기헤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과 같은 전자 광학 컴퓨터부품 및 신소재 부품을 초정밀 가공할 수 있는 신소재 경면 가공용 CNC 연삭기가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고.
9. 2: 정부, 국책과제로 추진해 온 중대형컴퓨터 개발은 상공자원부가 대형급을 체신부가 중형급을 각각 전담 개발하는 역할 분담 방식으로 최종 확정했다고.
9. 2: 상공자원부, 현재 381개인 공산품형식승인 대상품목을 가능한 한 축소하고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형식승인제도를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고.
9. 9: 상공자원부, 이제까지 산업현장의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수립해 온 단기적인 기술정책에서 탈피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산업을 기초공업, 전자정보산업, 기계공업,

- 화학공업, 섬유생활공업 등 5개분야로 구분하고 연차별로 산업별 기술체통도를 작성해 기업들에 기술비전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지원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.
9. 13: 과기처, 선도기술사업의 주관 연구사업분야인 신의약, 신농약, 정보, 전자, 에너지 등 첨단소재 신기능 생물소재 개발 등 3대과제에 대해 전문기관인 과학기술정책관리 연구소와 일괄협약을 체결했다고.
9. 14: 정부, UR 협상에 따라 선진국들이 추진중인 관세무세화 및 인하계획과 관련 관세폐지 및 인하기간을 장기화 하고 섬유나 가전제품 등도 관세무세화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키로.
9. 15: 체신부, CATV 프로그램 분배망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과 데이콤으로 국한할 방침이라고.

9. 16: 상공자원부, 제1회 산업기술진흥회의를 개최하고 과거 수출드라이브시대의 조직과 정책수단을 산업기술드라이브정책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.
9. 16: 공진청, ISO 9000시리즈의 국내 인증과 관련한 실행규정을 고시. 오는 10월 15일부터 후보인증, 연수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심사 능력을 평가, 확인한 후 인증실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.
9. 16: 체신부, 오는 '95년까지 총 150억원을 투입,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기 및 수신장치를 전자통신연구소와 업계공동으로 개발키로.
9. 17: 증진공, 기술집약형 26개 중소기업에 모두 133억 1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.
9. 17: 상공자원부,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물질로 규정돼 생산 및 사용이 규제되고 있는 염화불화탄소(CFC-11)의 대체물질인 수소화염화불화탄소(HCFC-141b)생산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돼 '94년 10월부터 양산된다고.
9. 22: 과기처, 전문핵심기술분야별로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모여 상호정보를 교류하고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소그룹 60개를 구성키로.
9. 22: 특허청, 국내외적으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컴퓨터 프로그램반도체 등 신지적재산권이 새롭게 등장하는 가운데 이를 전문적이며 연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연구소가 국내에 설립된다고.